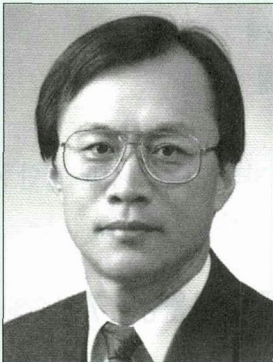


건강보험재정통합의 의미와 발전방향



宋在聖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1977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26년이 흘렀다. 선진제국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을 보면, 제도 확립기를 거쳐 적용대상의 확대기 그리고 급여의 충실화 및 형평화 과정을 겪어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료보험이 시행된 지 12년만인 1989년 7월 1일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열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1998년 10월에는 227개 지역조합과 공·교공단이 통합되었고, 2000년 7월에는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이 통합되었으며, 금년 7월 1일부터는 재정이 통합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통합·일원화가 완성되었다. 통합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지방조직 152개소가 감축(385→233개소)되었고, 직원 5,199명이 감원(15,653→10,454명)되었으며, 통합전산망 구축 및 전국 지사에서 직장과 지역업무를 동시 처리하는 업무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여년이 넘는 세월이 말해 주듯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보험통합만큼 논란과 갈등이 많았던 정책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소모적인 논쟁에 몰입되어 제도발전은 뒷전에 밀렸던 것도 일정 부분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건강보험제도의 근본 목적이 질병·부상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사회구성원 전체로 분산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강권을 온전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면, 어떤 형태의 제도개선도 이러한 근본 목적을 성취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을 수 없다.

건강보험재정의 통합은 위험분산범위를 전국

민으로 확대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이번의 재정통합으로 그간의 소모적 논쟁이 중단되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건강보험의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소득자와 비임금소득자간에 보험료부담의 형평성문제에 대한 논란과 함께 대규모 조직에서 오는 운영의 경직성 문제 등은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양화되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질병양상의 변화 및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건강보험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미래지향적인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할 중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

이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충분히 살려 이제부터는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를 통한 가계과산방지 등 국민이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하나 하나씩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부는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한 단계적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용효과적인 건강보험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질병으로 인한 가계과탄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진료비 상한선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암·희귀병 등 중증질환의 환자부담을 낮추기 위한 본인부담구조를 개편하며,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적용을 추진하며, 호스피스수가·장기요양수가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진료비, 약품비 절감 등 지출부문의 거품을 없애는 노력을 강화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안정적인 국고확보와 적절한 지원기준을 검토하고, 보다 더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며, 차상위 또는 한계계층 등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종래 소극적인 보험료 부과·징수기관에 머물러 있었던 건강보험공단도 보험지역활을 강화하여 건강증진,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노인 건강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보험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로 탈바꿈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공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공단으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운영

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방형임용제, 지시간 실적평가제·책임경영제 등을 도입·강화할 계획이다.

20여 년간의 긴 여정을 거쳐 재정통합을 실현한 지금부터는 국민의 기대수준 증대, 의료욕구의 다양화와 보장성 강화요구 등으로 더 많은 과제들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진정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새로운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의 통합은 위험분산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이번의 재정통합으로 그간의 소모적 논쟁이 중단되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건강보험의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